

한-캐 FTA 협력 유망 4대 산업



CONTENTS

목 차

요 약

Ⅰ. 한·캐 FTA 주요 협상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1
--------------------------------	---

Ⅱ. 한·캐 FTA 주요 협상 결과	2
---------------------	---

Ⅲ. 한·캐 FTA 협력 유망 4대 산업	5
------------------------	---

5	1. 자동차
8	2. 자원개발
14	3. 신재생에너지
18	4. 문화콘텐츠

요 약

◆ 캐나다 현지 무역관을 통해 캐나다 현지 학계, 업계, 진출기업 등과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개 FTA 체결 후 협력이 유망한 4大 산업 선정

□ 한개 FTA 협력 유망 4大 산업 선정 결과

- (자동차) 양국 간 가장 큰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로 한국산 부품에 대한 6%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면, 원가절감을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는 캐나다 자동차 업계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자원개발) 캐나다는 오일샌드와 셰일가스 매장량이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 중 → 강관, 밸브, 펌프, 커플링, 열교환기, 압력 용기 등 각종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공급여력을 초과
 - 관세 인하와,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산 기자재의 캐나다 수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
 - 단순 기자재 수출 뿐 만 아니라, 캐나다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지분 투자와 구매 계약이 확대 가능 → 한국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기자재 진출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신재생에너지) 국내 진출업체가 현지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터라, FTA 발효로 한국에서의 인력조달이 용이해져 사업 여건 개선 전망
 - 특정 직종의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절차 간소화(노동시장의견서 발급 생략)
 -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인 온타리오 주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내 원부자재와 인력에 대한 현지조달 비율 기준을 50~60%에서 19~28%로 대폭 낮춘 것도 도움이 될 전망
- (문화콘텐츠) 양국 간 우수 인력 교류 확대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합작 가능성 증가
 - ※ 캐나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가장 큰 장점은 NAFTA 이후 미국에서 자유롭게 우수인력을 영입할 수 있게 된 것

I 한·캐 FTA 주요 협상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주요 협상 경과

- '05.7월~'08.3월간 총 13차례 공식협상 개최

<한·캐 FTA 협상일지>

일 자	장 소	내 용
'05.7.28	-	제1차 한·캐 FTA 협상 개시
'05.9.27~30	서울	제2차 한·캐 FTA 협상 개최
'05.11.28~12.3	오타와	제3차 한·캐 FTA 협상 개최
'06.2.13~17	서울	제4차 한·캐 FTA 협상 개최
'06.4.24~27	오타와	제5차 한·캐 FTA 협상 개최
'06.6.26~29	서울	제6차 한·캐 FTA 협상 개최
'06.9.25~28	오타와	제7차 한·캐 FTA 협상 개최
'06.11.20~23	서울	제8차 한·캐 FTA 협상 개최
'07.1.29~2.1	밴쿠버	제9차 한·캐 FTA 협상 개최
'07.4.23~26	서울	제10차 한·캐 FTA 협상 개최
'07.10.9~12	오타와	제11차 한·캐 FTA 협상 개최
'07.11.26~29	서울	제12차 한·캐 FTA 협상 개최
'08.3.25~28	오타와	제13차 한·캐 FTA 협상 개최

* 자료원 : www.ftahub.go.kr

- '13.11월, 제14차 한·캐 공식협상에서 실질적 진전 확인
- '14.2월, 수석대표급 협의를 통한 주요 잔여쟁점 처리방안 합의
- '14.3.11일, 한·캐 정상간 FTA 협상 '타결' 선언
- '14.6.12일, 한·캐 FTA 가서명(initialing)

□ 향후 추진계획

- '14년 하반기 중 한·캐 FTA 협정 정식서명(Signing) 추진
 - ※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발효 예정

II

한·캐 FTA 주요 내용

※ ‘Ⅲ. 한캐 FTA 협력 유망 4대 산업’ 선정 주요 사유인 상품양허, 일시입국에 대해서만 요약

□ (상품양허)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높은 수준의 상품자유화 달성

○ (캐나다 시장개방) 품목 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품목 수 97.5%, 수입액 98.7%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

- 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13년 수출 22.3억 달러, 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3년(24개월) 철폐
- 자동차부품(6%)에 대해 즉시/3년 철폐, 타이어(7%) 5년 철폐, 세탁기·냉장고(8%) 등 가전은 즉시/3년 철폐 등으로 합의하여 수출확대 기대
- 섬유 분야(평균관세율 5.9%, 최고 18%)는 대부분 3년내 철폐로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합의

※ 원산지는 한·미 FTA(원사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

- 그 외 우리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 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

○ (한국 시장개방) 품목 수 86.1%, 수입액 92.3%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품목 수 97.5%, 수입액 98.4%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

-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 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 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하여 한·미(12.3%)/한·EU (14.5%)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

※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부여

※ 쇠고기(관세율 40%, 72%)는 15년 철폐, 돼지고기(22.5%, 25%)는 5년/13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 Agriculture Safe Guard) 설정

-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 한국의 對캐나다 수입액의 67.6%(09-11년 평균 기준) 내외는 이미 무관세를 적용

<한·캐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양허유형	우리 양허				캐나다 양허			
	품목수	비중	對캐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 수입액	비중
즉시	9,749	81.9	4,205	87.0	6,380	76.4	4,188	64.1
무관세	1,960	16.5	3,266	67.6	5,703	68.3	3,866	59.2
유관세	7,789	65.5	938	19.4	677	8.1	323	4.9
3년	502	4.2	255	5.3	1,401	16.8	2,072	31.7
5년	722	6.1	184	3.8	359	4.3	186	2.9
6년	2	0.0	0	0.0	-	-	-	-
7년	12	0.1	76	1.6	-	-	-	-
10년	612	5.1	29	0.6	2	0.0	0	0.0
세번분리	5	0.0	4	0.1	-	-	-	-
(10년내)	11,604	97.5	4,752	98.4	8,142	97.5	6,447	98.7
10년 초과	77	0.6	52	1.1	25	0.3	84	1.3
세번분리	5	0.0	4	0.1	-	-	-	-
계절관세/ 세번분리	1	0.0	0	0.0	-	-	-	-
현행관세	2	0.0	0	0.0	-	-	-	-
양허제외	211	1.8	22	0.5	181	2.2	0	0.0
총 합계	11,900	100	4,831	100	8,348	100	6,530	100

* 품목수는 HS 2011년, 수입액은 '09~'11년 수입액 평균

* 자료원 : 한캐 FTA 가서명 보도자료('14.6.12), 산업통상자원부

- (일시 입국)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없이 서비스 공급을 위해 입국하는 특정 직종의 전문 인력(professional)에 대해 취업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 노동시장 의견서(LMO: Labor Market Opinion) 없이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계약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됨
 - ※ LMO : 비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써, 고용주가 필요인력을 캐나다 내부에서 조달할 수 없고, 해당 인력을 외국에서 조달하더라도 캐나다인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 고용주는 현지 노동당국으로부터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의견서(Positive Labor Market Opinion)를 발급받아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
 - 전문 인력은 계약서비스 공급자(CSS : Contract Service Supplier)와 개인사업자인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로 대별되는데, 이들에 대해 LMO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직군은 다음과 같음
 - ※ 각 직군별로, 양국에서 요구하는 최소요건(학사 이상 학력소지 등)을 갖춰야 LMO 면제가능
 - (독립 전문가) 건축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의사 등
 - (계약 서비스 공급자) 회계사, 보험계리사(actuary), 건축가, 조경가, 생물학자, 기상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디자이너 등

III

한·캐 FTA 협력 유망 4대 산업

◆ 선정방법

- 토론토, 밴쿠버 무역관을 통해 접촉한 캐나다 현지 학계, 업계, 진출 기업과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이 유망한 4대 산업 선정

◆ 주요 선정 사유 : 상품양허, 인적교류 확대*

* 일시입국(Temporary Entry) 챗터에서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 선정결과 : 자동차,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1. 자동차

□ 산업동향

<완성차>

- '13년 기준, 북미 생산 자동차의 14.6%를 생산(세계 7대 생산국)
-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 생산라인의 축소/폐쇄를 계획하였던 미국 BIG3 자동차 기업은 운영기간 연장 및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음.
 - ※ '11년 St. Thomas 생산 시설을 폐쇄했던 포드는 남아 있는 Oakville 공장에 향후 8.5억 달러를 투자해 신규모델 라인을 추가한다고 발표

<북미 자동차 생산 현황>

(단위 : 대, %)

구분	'07	'09	'11	'12	'13	비중('13)
캐나다	2,578,787	1,487,661	2,135,121	2,454,064	2,369,961	14.6%
미국	10,757,576	5,684,436	8,661,535	10,063,210	10,792,120	66.6%
멕시코	2,095,627	1,557,208	2,681,050	3,001,814	3,052,395	18.8%
총계	15,431,990	8,729,305	13,477,706	15,519,088	16,214,476	100.0%

* 자료원 : Desrosiers Automotive

- 생산량의 90% 내외를 수출(주로 미국)하고 있으며, 캐나다 총 판매량의 95%를 수입산으로 충당
-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NAFTA를 활용해 국별로 생산 모델을 특화한데 따른 것으로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차종 중 북미산이 75%, 일본, 한국, 유럽에서 직접 수입되는 것이 25%를 차지

<캐나다 자동차 수출입 현황>

(단위 : 대, %)

구분	'07	'09	'11	'12	'13
총생산량	2,578,787	1,487,661	2,135,121	2,454,064	2,369,961
수출량	2,375,403	1,291,863	1,966,703	2,252,013	2,179,127
수입량	1,735,382	1,295,708	1,519,740	1,651,061	1,649,027
수출/생산(%)	92.1%	86.8%	92.1%	91.8%	91.9%

* 자료원 : Desrosiers Automotive, World Trade Atlas (HS 8703 및 8704 기준)

<캐나다 자동차 수입 및 내수판매 현황>

(단위 : 대, %)

구분	'07	'09	'11	'12	'13
총판매량	1,653,362	1,460,581	1,585,519	1,675,675	1,743,112
총수입량	1,735,382	1,295,708	1,519,740	1,651,061	1,649,027
수입/판매(%)	105.0%	88.7%	95.9%	98.5%	94.6%

* 자료원: Desrosiers Automotive, World Trade Atlas (HS 8703 및 8704 기준)

<자동차 부품>

- 완성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Magna 등 20여 개의 주요 1차 부품업체와 다수의 2차 부품업체가 공급 사슬 형성
- 자동차 가격 경쟁이 격화되면서, 완성차 제조업체의 원가 절감에 대한 부담이 1,2차 부품업체에도 영향
- 이러한 경영 환경 변화로 인해 전통적으로 기존 공급선 변동에 보수적이었던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한 글로벌 소싱을 한층 더 확대

□ FTA로 달라지는 비즈니스 여건과 한-캐 협력확대 방안

◆ 비즈니스 여건 변화 :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6%) 즉시 3년 내 철폐

-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완성차 업체/1차 부품업체로의 수출확대 기대

- 캐나다 자동차 산업 내 글로벌 소싱 확대 수요와 맞물려 상승효과 예상

- 현지 바이어 반응

기업명	Magna International	매출액	348억 달러 *캐나다 1위 부품업체
답변자	비공개	직책	비공개

- Magna는 원가 절감을 위해 글로벌 소싱을 더욱 확대
 - 아시아 지역의 공급업체는 아시아 구매 본부에서 관리하였으나 '12년부터 캐나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등의 업체에 직접 인사를 파견하여 품질, 공장 심사 등을 수행
- 주조 과정을 거쳐, 작은 공차로 정밀 가공을 하는 샤프트, 기어는 일본산과 비교해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은 수준
 - 관세 철폐시 한국산의 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면 한국 부품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 중국산은 저렴하나 공차가 크고 불량률이 다소 높은 것이 문제로 지적

- 다만, 파이프, 열간 및 냉간 단조, 프레스 등의 제품은 특별히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저렴한 중국산이 우위

기업명	Multimatic	매출액	2억 달러
답변자	Yvonne Guppy	직책	Senior Buyer

- 국제적으로 자동차 부품의 품질이 개선되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은 공급 가격이 바이어의 관심을 끄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며, 제품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보다 낮은 공급가를 제시하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 가능성을 논의
- FTA 발효시, 튜브, 개스킷 등 일부 품목에서 한국산 가격 경쟁력 제고 기대
- 가격 외에 납품기일 준수, A/S 등 과거 다른 업체와의 거래 이력과 업계 인지도 등이 공급 업체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

2. 자원 개발

□ 산업동향

- 캐나다는 에너지·자원 보유국으로, 최근 들어서는 셰일가스, 오일샌드 등 비전통 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 (셰일가스) 매장량에서 세계 5위, 대규모 셰일가스전이 위치한 서부 캐나다를 중심으로 LNG 수출 플랜트·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등이 활발하게 추진
 - 미국 내 셰일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최대 가스 수출국인 미국의 수입량이 20% 가량 줄어들어 가스 수출국 확대가 필요한 상황
 - 전 세계 LNG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동북아 3국 수출 증대를 위해 태평양 연안으로 가스관 건설, 가스액화설비 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LNG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년까지 3개 이상의 LNG 생산, 수출 시설 가동 목표'
 - 도로,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가스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비용의 최대 50%를 세금 감면 계획(1억 달러 규모)
- (오일샌드) 매장량에서 세계 2위, 원유수송을 위해 총 99,270km의 송유관을 운영
 - 캐나다 석유생산자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는 향후 20년간 오일샌드 중심으로 캐나다 원유가 2배 증산될 것이라고 전망

□ FTA로 달라지는 비즈니스 여건과 한-캐 협력확대 방안

◆ 비즈니스 여건 변화 : 한국산 기자재 관세 인하/철폐, 對캐나다 투자 확대

- 국내 기업의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지분 투자, 구매계약 확대
 -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책임 있는 자원개발계획(12.4월)'을 통해 외국기업들의 캐나다 내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인허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

- 우리 정부도 가스공사 등 공기업 외에도 민간 기업이 셰일가스 산업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셰일가스 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자원개발 분야 수출입은행 여신 규모를 21조 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

* 우리 정부는 '20년까지 LNG수입의 20%를 셰일가스로 충당 계획

한국 기업이 참여한 캐나다 오일샌드, 셰일가스 프로젝트 현황

- (오일샌드) 한국 석유공사가 인수한 Harvest Energy가 '06년 8월 Newmont Mining Corp.로부터 블랙골드 오일샌드 프로젝트를 인수하여 추진 중
 - (소재지) 블랙골드 광구는 알버타주 아싸바스카 오일샌드 지역에 있는 Fort McMurry로부터 남동쪽으로 140km에 위치
 - (매장량) 회수 가능한 비투멘 매장량은 약 259백만 배럴로 추정
 - (시공사) '10년 GS 건설이 시공업체(설계, 구매, 시공)로 선정
 - (추진현황) 일일 생산량 1만 배럴의 오일샌드 초중질유 정제/생산시설 완료 후, '14년 오일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
 - * 향후 30년간 현 15개 석유정에서 200개 정까지 개발, 일일 생산규모를 3만 배럴로 늘리기 위해 프로젝트 확장 승인 신청서 제출
- (셰일가스) 한국가스공사가 LNG Canada 프로젝트에 지분투자(15%) 형태로 참여
 - (규모) 120억 달러(잠정)
 - (참여기업) 한국가스공사 20%, Royal Dutch Shell 40%, Mitsubishi 20%, PetroChina 20%
 - (소재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북서부 해안 키티맷(Kitimat)
 - (매장량) 1단계에서 연간 1,200만 톤, 2단계에서 연간 1,200만 톤 생산 예상
 - (생산시기) '17~'18년

- 우리나라의 각종 기자재 및 플랜트업체 동반진출 확대 예상
 - 철강, 건설기계, 플랜트 기자재, LNG 운송선 등에서 국내업체 수혜 예상

<세일가스·오일샌드 개발 관련 국내 산업별 기회요인 분석>

산업	파급효과 및 기회요인
철 강	<세일가스> - 강한지압을 견디는 무계목(seamless), 8, 10, 12, 20인치의 두께(20~140mm) 대형 강관, 유정용 강관, 강관이음새, 밸브 등의 수요 증가 예상 <오일샌드> - 알버타주~태평양 연안으로의 송유관(Northern Gateway 파이프라인), 캐나다~미국을 연결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프로젝트가 건설될 계획임에 따라 송유관에 필요한 철강재 수요 증가 예상
건설기계	<세일가스> - 굴착 토목, 드릴 등 업스트림(Upstream: 탐사·생산)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수송·정제·판매)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관련 부품·기자재수요 증가 예상 <오일샌드> - 상수도관, 물저장 장비, 도로, 송전선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한국 업체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플랜트	<세일가스> - 주요 기자재 : 열교환기, 보일러, 변압기, 압축기, 피팅 및 밸브류, 혼합기, 고압펌프, 수처리 시스템, 불순물 제거 여과기, 굴삭기,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 특히 국내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열교환기, 변압기, 피팅 및 산업용 밸브류, 건설장비(굴삭기), 고압펌프, 가스 저장탱크가 유망 - 에탄 원료 (신규)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기자재,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 플랜트 관련 기자재(가스터빈, HRSG 등) 발주 증가 예상 <오일샌드> - 원유정제 고도화설비 및 하수처리 설비 관련 발주 증가 예상 * 한국 플랜트, 중장비, 시공, 파이프라인, 환경 기업의 참여 유망
조선	<세일가스> -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LNG 수요 증가는 수출을 촉진 → LNG운반선, LNG 탱커, 부유식 LNG 저장 및 재액화설비 등의 발주 증가 예상 * 캐나다는 LNG운반선 등 대형 선박 건조 기술이 부족한 상황으로 필요물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보임. <오일샌드> - 대형 유조선(VLCC: Very Large Crude Carrier)수요 증가 예상 * 캐나다 에너지 위원회(National Energy Board)는 현 생산 물량 1일 170만 배럴에서 2035년까지 500만 bpd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이는 수에즈막스 탱커 3척 분량에 해당

○ 현지 바이어 반응

기업명	Suncor Energy	매출액	376억 달러
답변자	Mr. Warren Szkolnicki	직책	Manager - SCM strategic Sourcing

- 한-캐 FTA체결의 파급 효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산 기자재에 대한 관세 철폐 및 국가이미지 제고로 한국산 수입(특히, 열교환기, 압력용기, 모듈 등) 증가 예상
 - * 단, 장기 프로젝트가 대부분인 만큼, 당장의 비즈니스 환경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의 경우, 통행권, 규제 허가, 철강 및 펌프 주문 소요기간 및 계절 요인 등으로 인해 약 5년 정도가 소요
 - * 기자재는 발주처에 벤더등록부터 시작하여 국내기업의 생산능력, 품질관리, 프로젝트 수행능력 등을 입증해야하며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또는 관리 수행 노력을 꾸준히 표출 필요
- 단순 기자재 수출보다는 에너지(오일샌드, LNG등)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지분 투자 또는 구매계약(Off-take Agreement)을 통해 국내기업과의 파트너십(엔지니어링, 기자재 구매 등) 기대

기업명	Fluor Canada	매출액	24억 달러
답변자	Mr. Stehpen Penner	직책	Project Manager

- 현지 오일샌드 프로젝트는 소수의 EPC사가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수주받는 과점시장으로, 동사도 주요 수혜기업 중 하나
- 최근 캐나다내 플랜트 산업 호황으로 현지 철강관련 품목(열교환기, 압력용기, 모듈, 파이핑 스푼 등)이 생산능력을 초과, 해외조달이 절실한 상황
- 한국산 제품 진출을 위해 발주처와 EPC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한데, 동사 AM리스트(Approved Manufacturers List: 벤더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기업 수는 약 10개 기업 뿐으로,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인증받은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
 - * 발주처의 AM리스트를 토대로 동사 자체 AM리스트와 비교 후 크로스 레퍼런스(cross reference; 업체 양측으로부터 추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RFQ 패키지를 공지 ➡ 발주처의 AM리스트도 중요하지만 발주처보다 더 넓은 분야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EPC사 AM리스트 등록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

기업명	SNC-Lavalin	매출액	76억 달러
답변자	Mr. Gordon Liu	직책	Procurement Lead

- 동사는 전 세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높은 프로젝트 기자재 비용으로 인해 지난 5년간 한국 EPC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형국

☞ 이에 따라 동사는 여러 국내 기자재 납품 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AM리스트에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 중
(동사는 현재 북미 소재 벤더를 활용 중)

- 주요 관심 제품은 열교환기, 압력용기, 계장용 밸브, 측정기, 분석기 등

기업명	Cenovus Energy	매출액	181억 달러
답변자	Mr. Tieshan Wong	직책	Sr. Advisor, Category Mgmt & Strategic Sourcing

- 최근 밸브와 특수 용도 (lined pipe류)파이프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로, 특수용도(severe application)에 사용되는 품목은 아직까지 중국이나 인도산보다는 한국산을 선호
- 한해 FTA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경영진에서 프로젝트 생산단가 관리를 눈여겨보고 있어 한국산 기자재 가격이 FTA로 인하된다면 수혜 가능성 제고
- 동사에 기자재 납품을 희망하는 경우 AM리스트에 등록절차 선결
* 재고관리를 위해, 현지 유통망을 구축한 벤더 선호

□ 협력 성공 사례

G社, 피팅·플랜지 제조

- 다수의 아시아, 중동지역 플랜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나, 캐나다 원청업체에 벤더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진출에 난항
- 캐나다 대형 원청사의 A 프로젝트 엔지니어링사로 선정('12년 말)된 국내기업 S사를 접촉하여 납품에 성공 → Reference 확보 → 캐나다 내 다른 프로젝트 진출 가능성 제고

W社, 열교환기 제조

- 중동 및 국내시장에는 납품실적이 많으나, 북미에는 진출경험이 전무하여, 캐나다 내 프로젝트 원청 및 EPC 벤더등록에 난항
- '10년 하반기에 한국석유공사에서 캐나다 광구를 인수하며 기 보유하고 있던 알버타 광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국내 G사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됨.
- W사는 G사의 국내 및 중동 프로젝트에 납품한 실적이 있어 G사에 납품을 추진해 성사(1,063,000달러) → 관련 인증취득 완료

3. 신재생에너지

□ 산업동향

- '12년 기준, 신재생 에너지원별 발전용량은 풍력 6,201MW, 태양광 766MW

<캐나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총 발전용량>

(단위: MW)

구분	'09	'10	'11	'12	'13
풍력 발전	3,319	4,008	5,265	6,201	7,803
태양광 발전	95	281	558	766	미집계

* 자료원: 캐나다 풍력발전 협회(CanWEA), 캐나다 태양광 발전 협회(CanWEA)

-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자재인 풍력 발전 터빈 및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캐나다의 풍력발전 설비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09	'10	'11	'12	'13
수출	15,952	12,594	19,304	18,496	9,772
수입	433,990	900,436	546,549	657,277	631,859
수지	-418,038	-887,842	-527,246	-638,781	-622,087

*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HS 8502.31기준)

<캐나다의 태양광 모듈 설비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09	'10	'11	'12	'13
수출	86,082	93,875	105,930	162,684	114,200
수입	269,271	701,605	990,482	511,798	521,447
수지	-183,190	-607,730	-884,552	-349,113	-407,247

*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HS 854140 기준)

-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2009년 Green Energy Act를 도입하면서,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

*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세제 혜택은 없는 것으로 파악

- Green Energy Act에서는 풍력, 태양광, 수력, 조력, 지열 등 천연 무공해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일반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발전차액제도(Feed-In-Tariff)를 도입

<온타리오주 발전차액제도 전력 구매 가격>

(단위: 센트/KWh)

구분	발전규모	'09년 구매 가격	'14년 구매 가격
태양광(건물 지붕)	10KW 이하	80.2	39.6
	10~100KW 이하	71.3	34.5
	100~500KW 이하	63.5	32.9
	500KW 초과	53.9	
태양광(지상)	10KW 이하	64.2	29.1
	10KW 초과	44.3	28.8
풍력	규모 관계 없음	13.5	11.5
온타리오 전력국의 평균 구매가격		3.13 ('13.12월 기준)	

*자료원: Ontario Power Authority, The Independent Electricity System Operator

- 퀘백, 노바 스코시아, 노스웨스트 준주 등 다른 주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확산

<주정부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계획>

주(State)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계획
퀘백	• 태양광 발전은 아직 규모가 미미 • 풍력 발전은 '14.5월 발전용량 기준 2,187MW 규모의 풍력 발전 시설이 가동 중이며, 686MW규모 발전시설이 건설 중 * 온타리오의 풍력 발전 용량은 '13년 기준 2,470MW
노바 스코시아	• 주정부는 Renewable Electricity Regulation을 제정, '20년까지 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수력 포함)를 이용하여 공급 계획
노스웨스트	• '17년까지 경유(Diesel)를 이용한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발전으로 교체 계획

- 또한, 온타리오 주에서 발전차액제도 요건으로 부과한 역내제품 및 서비스 이용 규제(domestic content requirements)가 완화*됨에 따라, 진출 희망 해외기업의 부담 경감

* EU와 일본은 이 규제가 외국산과 내국산 제품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GATT 및 TRIMS 규정에 위배된다고 WTO에 제소하여 승소

<온타리오산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규정>

발전방식	개정 전('13.8월)	개정 후
지상 풍력	50%	20%
결정질 실리콘 PV 태양광 발전	60%	22%
박막 PV 태양광 발전		28%
집광형 PV 태양광 발전		19%

* 자료원: Ontario Power Authority

□ FTA로 달라지는 비즈니스 여건과 한-캐 협력확대 방안

◆ 비즈니스 여건 변화 : 전문가 인력 교류 확대

- 우리 기업이 캐나다 현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할 때 역내제품 및 서비스 이용 규제에 따라 현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이나 숙련공을 바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아 애로 사항으로 작용
 - 지역별로 현지 인력조달 여건이 달라, LMO 발급 가능성도 차이
 -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등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현지 인력 수급이 어렵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LMO 발급이 까다로운 편
 - 노바스코샤, 알버타, 서스캐저완주 등은 인구가 적고 산업 기반도 취약해 인력 수급에 애로가 많아, LMO 발급이 상대적으로 용이
- ☞ 인력 교류가 확대되면 한국으로부터 인력 조달이 어느 정도 가능해져, 국내 기업의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대기업은 국내 사업장 내에서도 인력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확보가 쉽지 않을 뿐 더러, 인력 확보시에도 인력 유출 우려에 직면
 - ※ LMO를 지원해주고, 기술자를 데려와도 1~2년 내 보다 좋은 조건의 타직장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다수

○ 현지 전문가 반응

기업명	비공개(현지진출기업)	매출액	비공개
답변자	비공개	직책	비공개

- 용접 등 전문 기술을 갖춘 인력을 현지에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유사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채용 후 교육 필요
- 한국에서 어렵게 인력을 조달하면, 더 좋은 여건의 일자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장기 근무가 어려운 상황

□ 협력 성공사례

삼성물산, 온타리오주에 50억 달러 규모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건설

- 삼성물산은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총 발전용량 1,369MW 급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구성)를 건설 중
 - 총 사업 규모는 50억 달러로 온타리오 주정부 산하의 온타리오 전력국 (Ontario Power Authority)은 완공 이후 20년 동안 60억 달러에 달하는 전력을 구매할 계획
 - ※ '10년 온타리오 주정부와 처음으로 투자 계획에 대한 협약을 맺을 때에 계획된 발전규모는 약 2,500MW 였으나 '13년 1,369MW 규모로 수정되었고 주정부 지원금도 4.37억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조정
 - 발전 규모 축소와 더불어 발전차액제도 프로그램(FIT)의 전력 구매 단가 수정으로 인해 동 프로젝트에 대한 온타리오의 전력 구매 단가도 풍력 발전 10.5센트/KWh, 태양광 발전 29.5센트/KWh로 변경되었으며, 총 전력 구매액도 97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수정
 - ※ '13.12월 기준 온타리오의 평균 전력 구매금액인 3.13센트/KWh 대비 각각 3배, 9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책정
- 전체 사업은 총 3단계로 구성되는데, '14. 3월에 1단계 사업 공정이 완료되어 온타리오 주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
 - ※ 1단계 520MW(풍력 420MW·태양광 100MW), 2단계 549MW(풍력 449MW·태양광 100MW), 3단계 300MW(풍력 200MW·태양광 100MW)

4. 문화콘텐츠

□ 산업동향

- 캐나다의 문화 콘텐츠 시장은 '12년 기준 약 625억 달러로, '17년까지 연평균 4.4% 성장 예상(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3-2017, PWC)
- 스마트폰, 태블릿 PC 보급 확대가 모바일 콘텐츠 상품 소비 증가 주도

<캐나다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09	'10	'11	'12	'13(F)	'17(F)	CAGR
출판	6,089	6,357	6,238	6,127	6,041	5,810	-1.1
만화	44	43	45	50	50	48	-1.1
음악	1,390	1,282	1,302	1,340	1,370	1,466	1.8
게임	1,263	1,321	1,238	1,071	1,123	1,376	5.1
영화	3,014	2,947	3,069	3,093	3,136	3,444	2.2
애니	530	620	541	620	630	705	2.6
방송	11,274	11,995	12,362	12,437	12,502	12,838	0.6
광고	11,567	12,589	13,178	13,624	14,174	17,121	4.7
캐릭터	9,300	8,930	9,240	9,385	9,813	11,956	5.0
지식정보	11,247	12,561	13,710	14,799	16,188	22,751	9.0
합계	55,718	58,645	60,923	62,547	65,027	77,515	4.4

* CAGR: 연평균 성장률 / (F)는 전망치

* 자료원: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3-2017

-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영화 및 디지털 미디어 제작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 다수의 미국 영화 및 소프트웨어 기업이 캐나다에 진출한 상황
- 이들 대부분은 미국 본사에서 필요한 일부 작업을 캐나다에서 수행
- 특히 세액 공제 혜택으로 인해 미국 영화 제작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캐나다에 진출하거나 외주 서비스 업체에 맡겨 영상 보정 및 수정, 3D 작업, 캐릭터 삽화 등의 작업을 진행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캐나다 정부 세제 혜택

-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내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게도 캐나다 국내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
- 온타리오, 브리티쉬 콜럼비아 등의 주정부는 게임, 교육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미디어 상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부담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혜택 제공
 - * 온타리오 주는 총 인건비의 40%, 브리티쉬 콜럼비아주는 총 인건비의 17.5%의 세액공제 혜택
- CPTC(Canadian Film or Video Production Tax Credit)은 캐나다 국내 기업(내국인 지분 소유 50% 초과)이 영화 제작 목적으로 지출한 인건비의 25%를 세액에서 공제
 - * 단, 공제액은 총 제작비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최대 가능 공제액은 총 제작비의 15%
- PSTC(Canadian Film or Video Production Service Tax Credit)은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캐나다 내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건비가 발생할 때 지출 금액의 16%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
 - * CPTC와 달리 PSTC는 공제액 상한선이 없음.
- OFTTC(Ontario Film & Television Tax Credit)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으로, 캐나다 콘텐츠로 인증된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발생한 인건비의 35%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
 - * 별도로 투자 금액의 24만 달러까지는 40%의 세액공제 혜택
- OPSTC(Ontario Production Service Tax Credit)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발생한 인건비 및 각종 부대비용(장비 대여, 스튜디오 대여, 편집 프로그램(Software) 구입 또는 사용료 등)의 25%에 대해 세액 공제

□ FTA로 달라지는 비즈니스 여건과 한-캐 협력확대 방안

◆ 비즈니스 여건 변화 : 전문가 인력교류 확대

- (게임 개발) 양국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전문가 간 협력 가능
 - 캐나다에는 우수한 인력 풀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비디오게임 강국으로 부상(워너, 유비소프트 등 325개 이상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 포진)
 - * 일례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유비소프트의 Assassin Creed나 EA Sports의 FIFA 및 NHL 시리즈가 캐나다 게임스튜디오에서 제작
 - 한국은 소프트웨어 전문가 풀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전자기기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양국의 기술협력을 통해 차세대 게임 개발 가능
- (애니메이션) 양국 간 인력교류 확대로 공동제작 수요 증가
 - 캐나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에는 NAFTA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우수 인력 영입도 크게 기여
 - 한·캐 FTA 발효로 양국 간 인력 교류가 확대된다면 북미 시장에서 흥행 가능성이 높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현지 전문가 반응

기업명	Toonbox *애니메이션 제작사	특기사항	'넛잡' 공동 제작사
답변자	Hong Kim	직책	CEO

- 한국과 캐나다의 FTA로 양국 우수 인력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 가능

* 애니메이션 산업에 있어 캐나다의 현재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NAFTA 발효 이후 미국과의 자유로운 인력 교류 → 툰박스도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헤드헌터, HR 에이전시를 통해 미국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사를 영입 중

- 캐나다는 미국보다 제작비가 40~50% 가량 저렴한 반면, 지리적, 문화적으로 미국과 인접해 미국 정서에 맞는 제품을 공동제작 가능

* 한국과 캐나다가 공동 투자해 제작한 '넛잡'은 미국 시장에서 흥행 성공

기관명	George Brown College	특기사항	토론토 소재 전문대학
답변자	Daniel Maendel	직책	교수(게임 등 SW개발)

- 캐나다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세금 감면 혜택으로 글로벌 게임 기업이 캐나다에 진출,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운영 중
-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형성된 캐나다 게임 산업은 최근 토론토와 밴쿠버로 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토론토를 중심으로 중소 규모의 모바일 게임 스튜디오가 설립되어 게임제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한국과 캐나다 기업이 게임 개발 산업에서 협력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특히 양국은 우수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PC 게임 부문과 함께 향후 게임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모바일 게임 부문에서 양질의 게임 제작 가능
- 또한, 한국이 최첨단 전자기기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양국이 협력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게임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게임도 수년 내에 개발 전망
 - * 일례로, 양국의 기술적 협력을 통해 구글 글래스와 같이 몸에 착용 가능한 하드웨어와 함께 가상현실 소프트웨어를 보다 정교하게 시각화(Visualize)한다면 보다 뛰어난 게임 경험을 제공 가능

□ 협력 성공사례

한캐 공동 투자 애니메이션 '넛잡'

- 넛잡(Nut Job)은 한국의 레드로버, 캐나다의 톤박스(Toonbox), 미국의 걸프스트림(Gulfstream) 등 3개국의 자본과 인력이 협력하여 제작
 - '14. 5월 기준 현재 북미 6,450만 달러, 전 세계 7,700만 달러 흥행 수익 기록
 - * 손익 분기점은 약 3,200만 달러로, 이미 제작비 및 투자 원금 회수
-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 내 한-캐 기업 간 선구자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

- 양국 기업이 협력하게 된 계기는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국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파이낸싱을 지원
 - 덧붙여, 튜박스의 대표가 한국인이었다는 점도 상호 신뢰 구축 및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지렛대 역할
- 용이한 북미 우수 인력 확보가 양국 협력의 또 다른 요인
 - 북미 시장 소비자 입맛에 맞는 줄거리, 디자인, 캐릭터 등의 개발을 위해서는 북미 현지 인력 투입이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
 - 캐나다는 내국인 및 아시아, 유럽의 국제 유학생 등 우수 인력이 풍부하며, NAFTA 협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에 용이
- 미국보다 저렴한 제작 환경도 양국 기업 협력의 원인
 - 미국보다 캐나다에서 제작시 제작비용이 40~50% 절감 가능
 - 인건비는 북미 지역이 한국보다 35~50% 가량 더 높지만 캐나다 정부에서 미디어 및 영상물 제작 업체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으로 인해, 인건비 차이가 상당부분 해소



작성자

-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대리
- ◆ 밴쿠버무역관 오진영 대리
- ◆ 선진시장팀 이정선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4-021

발 행 인 | 오 영 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4년 6월 13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새로운 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